

[서식 1] 이용수기 신청서 및 서식

「2024년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및 이용수기 공모」 신청서(이용자)

- 제 목 : 작은 인연에서 끈끈한 육아공동체로 ‘새삼이들’
- 분 야 : 4.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성 명 : 윤선아

작은 인연에서 끈끈한 육아공동체로 ‘새삼이들’

○ 현대사회에서 육아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다

‘이웃사촌’이란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웃이, 마치 친척처럼 서로 돕고, 나누며 사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과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로 자주 교류하며 서로 의지하는 이러한 관계를 흔히 볼 수 있고, 저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해 육아나 가사를 전적으로 부부 둘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맞벌이 가정에서 일과 가정의 두 가지 일을 부담하다보면 수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다시 ‘이웃사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시대여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집에서만 육아를 하던 중 ‘화성형 아이키움터 새솔점’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동육아공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 곳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아이와 또래인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더 확장되어 아이들 나이가 같고 부부의 성향과 부모의 나이도 비슷한 세 가족이 작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 ‘가족품앗이’ 참여로 ‘새삼이들’ 가족이 모이다

화성형 아이키움터에서 인연이 된 세 가족은 서로 집으로 초대하여 종종 한집에 모여 ‘공동육아’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디를 가면 좋을지, 연령(개월)에 맞는 놀이는 무엇인지, 주변엔 어떤 정보가 있는지 등 육아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들의 주도가 아닌 가족들 스스로 참여하는 모임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나누고 있던 중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가족품앗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기회에 아빠들도 자주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족여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떠난 여행에서 가족품앗이

이름을 정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새솔동 삼총사 ‘새삼이들(새솔동 삼총사들의 이야기)’ 가족이 되었습니다.

맛벌이 부부로 아이를 돌보는 일이 항상 큰 고민이었는데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아빠, 엄마, 아이가 모두 참여하는 정기적 모임을 활성화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 모두의 장점을 모아 ‘끈끈한 육아공동체’로 뭉치다

사실 모임 초기만 해도, 존댓말을 주고받으며 낯설고 어색했던 아빠들과의 만남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했던 가족품앗이 활동은 ‘친해지기’였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육아관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모임 일정을 논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는 등 모임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맞을 때, 가볍게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주 만나며 친밀도가 점점 올라가자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아이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장점을 살려 어릴 적 자연에 관심이 많았던 아빠는 곤충 관찰하고 숲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 놀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빠는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함께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이해도가 높은 엄마는 다양한 놀이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인지발달을 도와주고, 요리를 좋아하는 엄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두 가족의 취미였던 캠핑은 전혀 경험이 없던 한 가족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세 가족이 서로 돕고 나누며 수많은 즐거움을 느꼈고, 이제는 캠핑이 우리 ‘새삼이들’ 가족의 가장 즐거운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계절 주기로 함께 지방으로 가족여행을 떠나 오롯이 그 계절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거창한 활동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산책하며 자전거 타기 혹은 집에서 보드게임을 즐기는 등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족품앗이’ 참여로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끼리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칫 외동이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며 노는 방법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 행복한 부모는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사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보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부부로서의 소통이 줄면서 싸움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가족품앗이 활동을 통해 서로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경험은 부모들끼리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며 대화의 횟수도 많아지고 친밀도도 높아지면서 부모 6명은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 간의 소통 문제, 양육에 대한 고민, 부부가 싸우게 되는 원인 등 각자의 고민을 나누면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찾아주고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부마다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며 부부 갈등을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현명하게 갈등해결 방안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평일에 늦거나, 주말에 급한 업무가 있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 부부간에 다툼이 많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다른 가족에게도 부탁을 할 수 있어서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마음 편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어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과 육아 모두 자존감이 높아지니 배우자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새삼이들’ 육아공동체가 가족들을 행복하게하다

가족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저희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습니다. 부부 사이는 여유가 생기고, 가족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다양한 친구들과 서로 어울리며 스스로 성장했고, 부모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삼촌, 이모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생겼습니다.

가족 품앗이 활동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동시에 진정한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새삼이들’ 가족은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가족 품앗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 항상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